

KHS, 유기실리콘 1만3000톤 증설

Methyl Chlorosilane 2만톤으로 확대 ... 살충제 탈피해 신소재 강화

중국 Zhejiang Xinan Chemical Group의 자회사인 KHS(Kaihua Synthetic Material)가 Methyl Chlorosilane Monomer 7000톤 플랜트를 2만톤으로 증설한다는 계획을 최종결정하고 공식발표했다.

KHS는 중국의 4대 Silicone Monomer 및 유도제품 생산기업 중 하나로 Trimethylchlorosilane, Hexamethyldisiloxane, Hexamethyldisilazane, Silicon Powder는 중국 최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Xinan은 핵심사업인 살충제, 실리콘, 정밀화학 부문에서 100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Glyphosate · 고기능 · 저독성 제초제 부문에서 메이저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Xinan은 종전의 살충제 중심에서 벗어나 Organosilicon 등의 신소재 부문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프로젝트 완공시 Organosilicon 생산능력이 2만2000톤에서 3만5000톤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4/08/31>